

■ 28일 입신(入神) 축하연 가진 본보 바둑해설위원 오규철 9단

# 광주 '바둑대부' 꿈☆은 계속된다

바둑 기사들에게는 평생 가슴에 새겨지는 두 가지 기쁨이 있다.

프로 입단이 그 첫째요, 9단 승단이 두번째다. 그러나 신의 반열에 들어가는 '입신(入神·9단)'은 글자 그대로 범부들에게는 평생 오르지 못할 '산'에 그칠 수 있다.

광주 '바둑대부' 오규철(54) 9단이 28일 광주 기우회원과 동료 기사들이 마련한 입신 기념 축하연을 가졌다. 조 9단은 지난해 11월 9단으로 승단했다.

“조훈현(영암), 김인(강진), 이세돌(신안) 등 한국과 세계 바둑을 대표하는 기사들을 배출한 이 지역에 변변한 바둑대회 하나 없다는 게 못내 아쉽습니다.”

## 34살 늦깎이 프로 입문...20년만의 잔치상

### 쟁쟁한 후배들 제치고 올 바둑리그 본선행

오 9단은 34살 늦깎이로 프로에 입문(83년)한 뒤 20년 만에 가장 큰 잔치상을 받았지만 의외로 무겁게 입을 댔다. 지역에서 바둑 대회 유치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기 바라는 마음이다.

그는 고등학교 때 바둑돌을 잡은 데다 지역 기사라는 핸디캡이 있었지만 불과 2, 3년 때 당대 '거함' 조훈현 9단과 패권을 다했다. 88년 왕위전, 89년 패왕전 준우승이 그 결과다.

특히 올 한국바둑 리그 예선에서 쟁쟁한 후배들을 제치고 리그 본선에 합류할 정도로 기복없는 실력과 관록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선배들이 모범을 보여야 후배들이 따릅니다. 바둑리그 예선 출전도 그런 의지였습니다. 아쉽게도 고향 팀이 아닌 부산 파크랜드 소속으로 한국리그를 치르지만 최선을 다해 팀우승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34살에 프로에 입문한 그는 조훈현 9단과 혈투를 벌이면서



오규철 9단은 28일 본보와 인터뷰하는 내내 바둑돌을 만졌다. 돌을 만지지 않으면 이야기조차 풀이갈 수 없는 못 말리는 바둑 인생이다.

니름기자 mjna@kwangju.co.kr

빠아프게 바둑을 배웠다. 물론 가장 인상 깊은 승부로도 조훈

현 9단과의 대국을 끝냈다.

“함께 대국할 기사조차 없었던 광주 '촌놈'에게 불과 9살에 일본에서 유학할 정도로 탄탄한 내공을 쌓은 조씨는 커다란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왕위전과 패왕전에서 조 9단에게 패한 뒤 뼈를 깎는 바둑 공부를 거듭했습니다.”

그는 '천재소년' 이세돌의 길라잡이였으며, 최근 한국 리그 예선전에서 '할배' 루이 9단을 꺾은 감지석 3단(17)과 신에 김수용 초단(16)을 길라잡이 주인공이다.

“평소 친분이 있던 이세돌(당시 6세)의 아버지가 부탁해 테스트 했을 때 결말이었습니다.당장 서울에서 바둑을 가르칠 것을 권했습니다. 지금도 영재를 보면 가슴이 설칩니다.”

## 이세돌 길라잡이...지역대회 없어 아쉬워

### '혼신' 다하는 승부사...타이를 홀더가 꿈

“정글이나 다름 없는 바둑판에서 20년 동안 싸우면 그의 승부철학은 '혼신'이다.

“대국에 모든 것을 쏟아야 합니다. 무념무상의 상태에서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쏟아야 진정한 승부를 펼칠 수 있습니다.”

“정글”에서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겪은 그가 후배기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없었 리 없다.

“바둑이 직업이 됐기 때문에 프로기사들이 오직 바둑만 보는데 개인 소양도 기르고, 쪽빠는 대인 관계를 갖는 것이 바둑 보급을 위해서나 개인을 위해 좋다고 생각합니다.”

노익장을 과시하고 있는 오 9단의 올 목표는 우승이다. 그는 “이제 입신도 했고 거쳐야 할 관문을 다 지난 만큼 타이틀 홀더가 되는 것이 꿈이라든 꿈이다”고 힘주어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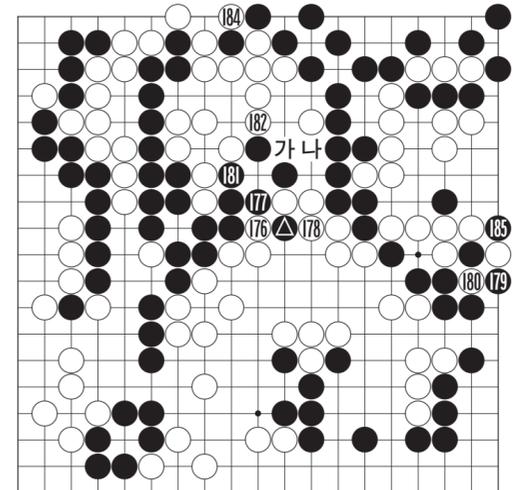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마무리 펀치  
결승전 제 12보(176~185)

白 이창호 9단  
<엠편>

黑 조훈승 8단  
<타이젼>



신예기사들은 한변 손바람이 나기 시작하면 말리기 어렵다. 조훈승 8단이 전보에서 묘착을 두어 승기를 잡더니 계속해서 흑 ▲로 붙여 이창호 9단을 몰아세우고 있다.

이 때 백이 178로 물러서면 안전하지만 전보에서 치명상을 입은 마당에 다시 선수 세 집을 당하면 가만히 앉아서 지게 된다. 그래서 176으로 일단 한 점을 잡고 버텨 왔으나 177에 돌이 놓이자 위쪽 백 대마의 사활이 문제가 되었다.

조 8단은 한 걸음 나아가 우변 179의 곳에 두어 패로 버티고 나섰다. 그런 다음 팻감으로 181의 곳에 두어 상대의 눈을 없애가며 백 대마를 공격하고 있다. 백은 182로 받을 수밖에 없다.

백이 이 수를 두지 않으면 흑이 184의 곳에 이어 이후 백 '가', 흑 '나'로 천지대패가 되고 만다. 이창호 9단도 이 정도 수 좁아야 흰히 내다보고 있을 터지만 이번 대국이 단체전인데다 팀의 우승까지 걸려 있는 결승전인 만큼 결사적으로 버티고 있다.

결국 흑이 183으로 우변 패를 따내자 최하 양패가 되고 말았다. 오른쪽 패는 백이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결론이다. 그래서 백은 184로 대마를 살려 보더니 흑이 185로 우변을 때내자 결말 수 없었던 지선선하게 돌을 던졌다.

조 8단의 빛나는 마무리 펀치였던 것이다. 흑 183은 패 따냄.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한국이 아시아 바둑대항전 2연패에 나선다. 한·중·일 대만 4개국이 출전하는 제5회 CSK배 아시아 바둑대항전이 5월1일부터 3일까지 일본 벵부(別府)에서 열린다.

한국은 1회 대회 우승 이후 3년 만에 지난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일본 기전인 이 대회에서 한국은 국내 톱랭커인 이창호 9단, 이세돌 9단, 최철한 9단, 박영훈 9단, 고근래 4단 등 타이틀 홀더들이 출전한다. 1인당 3국을 둔다.

## 한·중·일 바둑 '기력' 대충돌

내달 1~3일 일본서 '쇼바둑대항전'...한국 2연패 도전

이 8단, 구리 7단, 룡제 7단, 세하 6단 등 중국 대표기사들이다.

일본에서는 요다 노리모토 9단, 유키 9단, 다카오 신지 9단, 아마사타 게이코 9단, 고노리 8단이 출사표를 던졌다.

한·중·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인 대만은 진시영 5단, 반선거 7단 등 5명이 출전한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생활의중심 SK telecom KT&G 전남본부

**영화안내**  
Happy Time  
영화보다 더 재미 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메가박스**  
구. 런던역국사거리 ☎예매1544-0600

1관	맨발의 기쁨이 (연예)	최고급관
2관	달콤 살벌한 연인 (184)	
3관	말안고자의 진실-더빙 (연예/마이킴 김대출 (124)	
4관	사생결단 (184)	
5관	도마뱀 (124)	
6관	인사이드맨 (154)	
7관	아이스에이지2-한글자막 (연예/델 (154)	
8관	맨발의 기쁨이 (연예)	
9관	사생결단 (184)	

★이프유 주차장 이용시 3시간 무료 (단, 영화관과 교차로 합동) 3시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관람이 무제한 공개(매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엔터시네마**  
충장로 57가 ☎ 228-2700

1관	아이스에이지2(자막) (연예)
2관	맨발의 기쁨이 (연예)
3관	맨발의 기쁨이 (연예)
4관	마이킴 김대출 (124)
5관	도마뱀 (124)
6관	델 (154)
7관	사생결단 (184)

**컬럼버스 시네마**  
하남점 상무점  
하남점(우역회관2동) 상무점(상무병원과 이마트 사이)

1관	아이스에이지2(자막) (연예/마이킴 김대출 (124)
2관	말안고자의 진실(더빙) (연예/식스틴 (154)
3관	아이스에이지2(더빙) (연예/맨발의 기쁨이 (연예)
4관	맨발의 기쁨이 (연예)
5관	노스 컨츄리 (154)
6관	달콤 살벌한 연인 (184)
7관	사생결단 (184)
8관	와일드 (연예/인사이드맨 (154)
9관	도마뱀 (124/사생결단 (184)
10관	도마뱀 (124)

**엘지공인중개사**  
T.019-616-2353  
011-601-8230

화순 도곡온천 단지내 최고 성업 중인 무인텔  
·내 50평 건 288평  
·월 매출 250~300만 보장

롯데백화점부근 상업용지  
·3층상가 및 주차장  
·보 191천 / 월 86만

충장로 4가 5층 상가  
·내 50평 건 288평  
·보 1억 / 월 180만  
·공사가 담 766만

쌍촌동 동림지구와 바들마을 사이  
·4가리 20도 도로 접(공사중)  
·140평 \* 390만

쌍촌동 광천교회 부근  
·아파트 단지 최후의 (8M 계획도로 접)  
·530평 \* 170만

양동 상업지역 고급주택  
·내 50평 건 60평 건 61평  
·매매가 295천

화정동 신도시와 대주 사이  
·내 123평 단층상가  
·매 992천만

양동시장과 서부경찰서 사이 내지  
·내 123평 단층상가  
·매 184평

도산동 파랑새이식장 건너편  
·20M 도로접  
·270평 \* 220만

화순 영평리 전원주택적지  
·내 333평 \* 12만

5층 상가건물  
·양동파랑새지구 내지 180평 건평 470평  
·전원주택적지  
·화순 남면 주산리 우암정 보이는 전원주택적지 내지 1100평 \* 10만

**유성공인중개사**  
☎(대)352-4545, 364-4545  
(영선동 송원연로다사거리)

**광천동개발지역**

주택매매  
대지 49평 매 3천  
대지 77평 매 3천  
(그외 상가등 물건 다수 보유)

010-4610-5631

**모텔급매**

객실 42개  
최신시설  
월매출 5천만원  
용자 12억  
매 25억  
016-605-7000

**LCE타워(주)**  
☎(대)972-8004, 010-7154-6995  
(현만지구)

**첨단지구내 최상의 위치 LCE타워를 최적의 조건으로 임대합니다. 일일 유동인구 1만명 이상**

- 3층 212평 88평  
가능업종:신경정형외과, 안과, 피부비뇨기과, 성형외과, 각종 학원등
- 4층 300평 30평 47평  
가능업종:어린이 교육 및 놀이시설, 각종 사무실등
- 5층 222평 114평  
가능업종:스키아리온지, 호프, 담주장등

**현대공인중개사**  
☎(062)371-1900, 011-638-2656  
(상무 우리병원에서 50m 지점)

**급매물 상담 후 10일내 책임 증개**

◀ 구합니다 ▶

- 광주시내 토지(면적이나 금액에 상관없음) 구함
- 기도원 부지: 장성,담양,화순 2만평이상
- 가격은 싼가
- 장성 진원면 도로에 접한 생산농자·현금2억
- 병원 신축부지: 면적 가격은 물건 검토시 결정

▶ 판다 ▶

- 카센터부지  
광산구 우산동 대지 117평 평당220만원 20m 도로변
- 상가부지  
양산동 구획정리지구 아파트정촌외 161평 평당450만원
- 복구 용두동  
40m 도로 계획선에 접 770평 평당55만원
- 광산구 삼도동  
1,900평 2차선 도로에 접 평당 20만원
- 지하철 시청역부근  
마복동 574평 평당400만원 40m 도로계획선에 저축
- 컨벤션센터 부근 토지  
마복동 화백단지 908평 상담후 결정

**21세기부동산개발(주)**  
호남대표부동산! ☎(대) 525-0021, 전철상담 011-612-3421

경매 투자자투자상담 환영!!  
법원경매·공매에 투자하여 부동산 철학에 사다!  
\* 경매·낙찰시 엄청난 수익이 기대되는 물건

1. 하남 80m 도로변 임대 철나는 건물 지상층 지하2층 대지 177평 건평 30억/최저가 15억
2. 상무지구 미복동 생산농자 약 900평 주변시세 평당 200만원선 긴급 매매가 평당 130만원선
3. 평동공단내 공장건물 2층 대지 800평 건평 8억/최저가 4억
4. 장사 절되는 상무지구 신축물대 대지 200평 건물용 200평 30억/최저가 13억
5. 두암터온 4가리부근 임대철되는 위치의 6층건물 건평 996천만/최저가 5억원선
6. 양동 오거리부근 관대로운 5층 건물 대지 62평 건물 리모델링 완료 시 임대 보강 가능한 위치가 좋은 건물 7억5천/최저가 3억2천
7. 농성동 관대로운 아파트 모델하우스로 이용중인 토지 1000평 건평 55억/최저가 26억
8. 화순중상업지구내 위락시설 5층 건물 대지 520평 현재 나이트클럽, 유흥주점, 오락실 등으로 사용중에 있음. 건평 33억/최저가 17억

**운안동 공구의 거리 깨끗한 건물 긴급 매각**

1. 광안로거리 주유소 옆 건물용 대지 7가 평 임대용건물 회사용 사무실용도적합. 동원지구 개발완료시 발전가능성이 높은지역 매매가 5억 3천주원만 예상 2억2천만
2. 농성동 상공화역소 건너편 리모델링 완료된 4층건물 대지 150평 건평 18억 긴급매매가 12억 임대 철나는 건물임

**이주산 아파트부지 매각**

1. 농성동 남구현 뒷편 아파트 건축 허가를 특한 토지 2000평 현재 지하공사 중전원 상태임. 매매가 평당 100만원선
2. 복구 용두동 고령고 뒷편 아파트 부지 약 10000평 현재 지주와 공방개발 협의중에 있음. 매매가 150만원선

**성업중인 골목연세상 급매**

1. 광산구 현만지구 지점적지 2200평 인도화골목프렌들링. 최신시설 완비. 최신시설소요비용 47억 주원만 예상 3억7천/평20%순수 수익보장
2. 동원지구 제2순환도로변 현재 상업 중인 연세상. 토지 약 7500평 아파트 지장 설치가능. 매매가 70억

**긴급 부동산 물건매매**

1. 양동 청평·대림동 7000㎡ 도로변 광장 부지 약 14,000㎡. 매가 평당 15만 원 산설로남고속도로부근 대역역사 무인텔 상업용 건물에 토질과 주변 환경이 수려한 지역인 북동쪽산단. 공장산단부지. 기존시상 7억·미·1000㎡·평선. 전동주유부지도 이용 가능한 토지임
2. 복구 용두동 도로변 내지 생산농자 11000㎡ 산설도로 접. 철근 콘크리트를 신축부지용 200㎡ 도로변 크·부지 매매가 평당 120만원(토지·건물·대지)
3. 양동청안구 도로변내지. 광주호가 내려오는 환상적인 일출을 감상할 수 있는 560㎡. 매가 평당 52만원. 전철 주박·카페·기타시설·편선·신선한매장시설에 적합한 토지
4. 장성동가 내려오는 임대 20,000㎡ 평 대지 평당 150만원. 완공된 경사. 장성호 국인관광단지내. 연금투자자합
5. 화순 도곡 온천관광단지 건너편 996평 산설 5500㎡ 대지 평당 15만원 선 대역역사(부지용) 토지
6. 복구 용두동 용정가는길 산설고 평면 생산농자 10000㎡ 대지 매가 4000㎡ 그리벨트 해저면 용정동 주거지역 1,000㎡ 대지 평당 100만원
7. 광산구 우산동 농성사거리부근 1000㎡ 도로변 접 평당 100만원
8. 양동동 구회·비포부지 1000㎡ 대역역사 산설산설부지용 평당 700만원

**대인동심일부동산**  
☎(대)223-1140, 010-7101-602-2332  
(영선동 신복동. 대인동 신복사거리-편)

**모델 목록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료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소번으로 모델·목록 및 각종 상가건물 사실분과 일의실 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